

간호대학생의 리질리언스가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

이은하
해전대학교 간호학부

Effect of Resilience on Academic Burnout of Nursing Students

Eunha Lee
Department of nursing, Hyejeon College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리질리언스가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학업소진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자는 일 대학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 300명으로, 2018년 11월 1일부터 11월 16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하여 자료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4.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Paired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리질리언스는 평균 61.40 ± 12.96 점이며, 학업소진은 평균 41.49 ± 7.50 점이었고, 학업소진은 리질리언스($r = -.512, p < .001$)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소진은 성별, 간호학 전공 만족도, 스트레스,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간호학 전공 만족도($\beta = .380, p < .001$), 주관적 건강상태($\beta = .171, p = .040$), 리질리언스($\beta = -.333, p < .001$)로 나타났으며, 이 변수들의 설명력은 41.0%이었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간호학 전공 만족도에 불만족하며, 주관적 건강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며, 리질리언스가 낮은 경우 학업소진이 높은 것으로 유추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리질리언스를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인지하고, 이를 간호교육 프로그램에 적용하여 학업소진을 예방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Abstract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 of resilience on academic burnout of nursing students. The participants were 300 students of nursing college located in C do, Korea through a questionnaire. Data were collected from November 1 to 16, 2018. The collected data were complied using the SPSS/WIN 24.0 statistic program with Paired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mean scores were resilience $61.40(\pm 12.96)$, academic burnout $41.49(\pm 7.50)$ an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resilience and academic burnout ($r = -.512, p < .001$).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academic burnout of nursing students was significantly affected by satisfaction of nursing major($\beta = .380, p < .001$), health status($\beta = .171, p = .040$), resilience($\beta = -.333, p < .001$) and The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for these factors, R^2 showed an explanation force of 41.0%. Resilience was associated with lower levels of academic burnout. These finding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nursing educational program in order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resilience and to manage the academic burnout.

Keywords : Resilience, Academic Burnout, Nursing Students, Satisfaction of Nursing Major, Health Status

*Corresponding Author : Eunha Lee(Hyejeon College)

Tel: +82-41-630-5269 email: ehlee@hj.ac.kr

Received March 12, 2019

Revised April 29, 2019

Accepted June 7, 2019

Published June 30, 2019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대학생은 타 학과 대학생들보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임상실습을 병행한 과중한 수업량을 소화해야 하고, 전문직 간호사의 역할을 위해 간호교육인증평가원의 인증기준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해야하기 때문에 많은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학업스트레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부정적응적인 결과들이 만성화 될 경우 신체적으로 지치고, 학업에 대해 무능감과 냉담을 느끼며, 학업수행에 있어서의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 학업소진이 나타난다[1]. 간호대학생들의 학업소진은 임상실습이 시작되는 3학년 학생들이 가장 높으며[2], 건강과 삶에 영향을 미쳐 학업을 포기하게 되고[3], 졸업 후에도 그 영향이 이어져 직장에서의 이직의도를 높인다고 한다[4]. 학업소진은 개인적 자원 또는 환경적 요인에 따라 예방 및 대처가 가능한 것으로[5] 학업 적응과 건강한 학교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 관리 및 학업소진을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리질리언스(Resilience)는 스트레스나 역경을 극복하여 스트레스 이전의 적응수준으로 회복하고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다[6]. 현재 국내에서 극복력, 회복력, 적응 유연성, 자아탄력성 또는 심리적 탄력성, 복원력 등 여러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어[7], 본 연구에서는 리질리언스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한편, 간호대학생에게 리질리언스는 스트레스 상황을 이겨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필요한 개념으로 리질리언스의 강화는 정신적 신체적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증진하는데 도움을 준다[8]. 리질리언스에 관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간호대학생의 리질리언스가 높을수록 지각된 스트레스 경험이 낮았으며[9], 문제해결과정 및 임상수행능력이 높았다[10,11]. 또한, 리질리언스가 높은 간호대학생들은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낮았고[11],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12]. 리질리언스는 소진에도 영향을 미쳐 실습소진의 조절변인으로 실습관련 스트레스를 중재해 준다는 연구결과가 있다[13]. 국외연구로는 리질리언스가 스페인 간호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과 학업소진을 낮추는 영향요인으로 설명하였고[8], 오스트레일리아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소진 예측변인으로 심리적 극복력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14]. 이에 반하여 국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리질리언스와 학업소진 정도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상태이다. 또한, 임상실습을 경험한 3, 4학년 간호대학생의 리질리언

스와 실습소진을 조사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한편,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는 리질리언스가 높은 간호사는 소진의 정도가 낮아 직무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보고되었다[15,16]. 이외에도 여러 분야의 임상간호사의 리질리언스와 소진에 관한 연구가 있어[17,18,19], 소진예방을 위한 리질리언스 증진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학업소진을 낮추고 학업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해 간호대학생의 리질리언스를 파악하여 학업소진을 줄이기 위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학업소진은 예방 대처가 가능함에 따라 학업소진을 높게 경험하지 않은 1, 2학년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소진 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하는 것이 높은 학업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학업 소진을 낮게 지각하기 위한 방안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대상자들의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적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고자 시행되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리질리언스가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대학생의 리질리언스와 학업소진 정도를 파악한다.
- 2)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리질리언스와 학업소진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간호대학생의 리질리언스와 학업소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4) 간호대학생의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리질리언스 정도를 파악하고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C도에 소재한 대학의 1, 2학년 간호대학생 중,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희망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한 후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연구 대상자 수는 G-power 3.1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에 필요한 적정수의 표본크기를 계산하였다. 유의수준 0.05, 검정력 $(1-\beta)$ 0.95, 효과크기 0.13을 확보하기 위해 산출한 결과 총 210명으로 산출되었다[24]. 산출된 결과를 토대로 탈락률을 고려하여 총 324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315부를 회수하였고, 불완전 응답을 한 15부를 제외하였다. 본 연구대상자 300명은 연구 분석에 필요한 표본수를 충족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리질리언스

리질리언스는 스트레스나 위기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더 나아가 긍정적인 적응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인간의 심리사회적 능력으로[6], 본 연구에서는 Connor & Davidson[20]이 개발한 CD-RISC(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를 Baek[21]이 번안한 K-CD-RISC(Korean Version of Connor-Davidson Resilience)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강인성, 지속성/내구성, 낙관주의, 지지, 영성의 5개 영역 총 25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0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리질리언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Baek[21]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3으로 각 하위영역별로는 강인성 .87, 지속성/내구성 .87, 낙관주의 .58, 지지 .59, 영성 .25이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2로 각 하위영역별로는 강인성 .87, 지속성/내구성 .88, 낙관주의 .87, 지지 .70, 영성 .53이었다.

2.3.2 학업소진

학업소진은 Schaufeli 등[22]이 개발한 MBI-SS(Maslach Burnout Inventory-Student Survey)를 Hong[23]이 한국어로 번안한 15문항의 도구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정서적 탈진, 냉담, 무능감의 3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인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소진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Hong[23]의 연구에서는 각 하위영역별 Cronbach's α 는 정서적 탈진 .84, 냉담 .83, 무능감 .7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정서적 탈진 .86, 냉담 .83, 무능감 .82이었다.

2.4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8년 11월 1일부터 11월 16일까지 연구자와 연구보조자가 총 324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315부를 회수하였고, 이 중 불완전 응답을 한 15부를 제외하고 300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2.5 윤리적 고려

연구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보호와 자료의 무기명처리, 비밀보장과 응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라도 철회 가능함을 설명하였다. 또한, 성적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연구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서면으로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한 학생만이 설문에 응답하였고, 동의하지 않은 학생들은 연구 참여에 동의하지 않음에 표시하고 설문을 진행하지 않았다. 설문지 회수는 연구보조자가 일괄회수하였다.

2.6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4.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 2) 대상자의 리질리언스, 학업소진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리질리언스, 학업소진의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증은 Scheffé 검증을 하였다.
- 4) 대상자의 리질리언스와 학업소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고,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 300명 중 여학생이 258명(86.0%)으로 많았고, 연령분포는 20-29세가 143명(47.7%)으로 가장 많았다. 학년은 1학년이 149명(49.7%), 2학년이 151명(50.3%)으로 고루 분포하였다. 간호대학생의 192명(64.0%)는 종교가 없으며, 현재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학생이 129명(43.0%)으로 가장 많았고, 99명(33.0%)은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상자는 109명(36.3%)이었고, 흡연을 하는 학생은 64명

(21.3%), 음주를 하는 학생은 224명(74.7%)이었다. 스트레스는 '보통'이 128명(42.7%), '많이 느낌'이 113명(32.6%), '매우 많이 느낌'이 38명(12.7%), '거의 느끼지 않음'은 21명(7.0%) 순이었고, 간호학 전공 만족도는 '보통'이 136명(45.3%), '만족'이 113명(37.7%), '불만족'은 34명(11.3%), '매우 만족'이 17명(5.7%) 순이었다. 대상자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보통'이 127명(42.3%), ' 좋음'이 80명(26.7%), '나쁨'이 61명(20.4%), '매우 좋음' 22명(7.3%), '매우 나쁨'이 10명(3.3%)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30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42	14.0
	Female	258	86.0
Age	≤19	131	43.7
	20-29	143	47.7
	≥ 30	26	8.6
Grade	1st	149	49.7
	2nd	151	50.3
Religion	yes	108	36.0
	no	192	64.0
Living arrangements	with family	129	43.0
	in the dormitory	64	21.3
	alone	99	33.0
	with a friend	8	2.7
Part-time job	yes	109	36.3
	no	191	63.7
Smoking	yes	64	21.3
	no	236	78.7
Drink use	yes	224	74.7
	no	76	25.3
Stress	very stressful	38	12.7
	stressful	113	32.6
	moderate	128	42.7
	hardly	21	7.0
Satisfaction of Nursing Major	dissatisfied	34	11.3
	moderately satisfied	136	45.3
	satisfied	113	37.7
	very satisfied	17	5.7
Health Status	very poor	10	3.3
	poor	61	20.4
	moderate	127	42.3
	good	80	26.7
	very good	22	7.3

3.2 대상자의 리질리언스와 학업소진 정도

연구대상자 리질리언스의 평균 점수는 61.40 (±12.96)점으로 하위영역별로 볼 때 강인성 20.66(±5.74)점, 지속성 20.50(±4.84)점, 낙관주의 10.02(±2.52)점, 지지 5.82(±1.45)점, 영성 4.30 (±1.40)점이었다. 학업소진의 평균 점수는 41.49 (±7.50)점이었고, 하위영역별로 정서적 탈진 16.57(±3.91)점, 냉담 8.86(±3.00)점,

무능감 16.05 (±2.95)점이었다(Table 2).

Table 2. Degree of Resilience and Academic Burnout (n=300)

Variables	Category	M±SD	M±SD	Min -Max
Resilience	Hardiness	20.66±5.74	2.30±0.64	5-36
	Persistence	20.50±4.84	2.56±0.60	4-32
	Optimism	10.02±2.52	2.51±0.63	1-16
	Support	5.82±1.45	2.91±0.72	0-8
	Spirituality	4.30±1.40	2.15±0.70	1-8
	Total	61.40±12.96	2.46±0.52	21-99
Academic Burnout	Emotional Exhaustion	16.57±3.91	3.31±0.78	5-25
	Cynicism	8.86±3.00	2.22±0.75	4-20
	Academic Efficacy	16.05±2.95	2.68±0.49	6-26
	Total	41.49±7.50	2.77±0.50	19-66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리질리언스와 학업소진의 차이

대상자의 리질리언스는 연령, 스트레스, 간호학전공 만족도,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 검정을 실시한 결과, 연령이 많을수록 리질리언스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F=5.031, p=0.007$), 스트레스는 '거의 느끼지 않음'이 '매우 많이 느낌'과 '많이 느낌'보다 리질리언스가 높았다($F=7.976, p<.001$). 간호학 전공 만족도는 '매우 만족'과 '만족'이 '불만족', '보통'보다 리질리언스 점수가 높았으며($F=9.974, p<.001$), 주관적 건강상태는 '매우 좋음'과 ' 좋음'이 '매우 나쁨', '나쁨', '보통'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리질리언스 점수가 높았다($F=15.681, p<.001$).

대상자의 학업소진은 성별, 스트레스, 간호학 전공 만족도,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 검정을 실시한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업소진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t=2.03, p=0.018$), 스트레스는 '매우 많이 느낌'이 '보통', '거의 느끼지 않음'보다 학업소진이 높았다($F=8.179, p<.001$). 대상자의 간호학 전공 만족도에서는 '불만족', '보통'이 '만족'보다 학업소진 점수가 높았으며, '만족'이 '매우만족'보다 학업소진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F=33.206, p<.001$). 주관적 건강상태는 '매우 나쁨', '나쁨', '보통'이 ' 좋음', '매우 좋음'보다 학업소진이 높았다($F=14.580, p<.001$)(Table 3).

Table 3. Difference in Resilience and Academic Burnout by General Characteristics

(n=300)

Characteristics	Categories	Resilience			Academic Burnout		
		M±SD	t or F(ρ)	Scheffé	M±SD	t or F(ρ)	Scheffé
Gender	Male	64.38±15.22	3.669(.108)		38.95±7.40	.203(.018)	
	Female	60.91±12.52			41.90±7.45		
Age	≤19	60.63±11.76	5.031(.007)	a,b<c	42.31±6.86	2.222(.110)	
	20-29	60.72±13.43			41.17±7.95		
	≥30	69.00±14.07			39.12±7.67		
Grade	1st	61.36±13.26	.022(.960)		41.32±7.49	.057(.701)	
	2nd	61.44±12.69			41.66±7.53		
Religion	yes	62.64±14.39	-1.312(.190)		40.93±8.16	.999(.319)	
	no	60.59±11.99			41.84±7.11		
Living arrangements	with family	60.91±13.09	.463(.708)		42.30±7.27	1.097(.351)	
	in the dormitory	60.95±12.25			40.64±6.65		
	alone	61.96±13.60			40.87±8.25		
	with a friend	65.88±8.03			42.88±7.72		
Part-time job	yes	61.19±12.71	.500(.835)		41.33±7.28	.150(.781)	
	no	61.52±13.12			41.58±7.64		
Smoking	yes	61.61±12.61	.953(.598)		41.39±7.23	3.142(.671)	
	no	60.64±14.25			41.84±8.46		
Drink use	yes	63.19±9.42	2.759(.571)		44.06±8.05	.242(.159)	
	no	61.30±13.13			41.35±7.46		
Stress	very stressful ^a	54.66±14.36	7.976(<.001)	a<c, a,b<d	45.05±8.55	8.179(<.001)	c,d<a, c<b
	stressful ^b	60.06±13.21			42.89±6.87		
	moderate ^c	63.25±11.26			39.47±6.74		
	hardly ^d	69.95±12.78			38.80±8.39		
Satisfaction of Nursing Major	dissatisfied ^a	55.26±14.34	9.974(<.001)	a,b<c,d	48.18±7.61 ^a	33.206(<.001)	c,d<b<a
	moderately satisfied ^b	58.96±12.76			43.52±6.30 ^b		
	satisfied ^c	65.01±11.27			38.10±6.13 ^c		
	very satisfied ^d	69.24±12.75			34.41±8.29 ^d		
Health Status	very poor ^a	46.70±12.22	15.681(<.001)	a,b,c<d,e a<c	48.80±8.63 ^a	14.580(<.001)	d,e<a,b,c
	poor ^b	56.84±12.83			44.48±6.71 ^b		
	moderate ^c	59.35±11.81			42.56±6.27 ^c		
	good ^d	67.36±10.86			38.04±7.40 ^d		
	very good ^e	70.91±12.47			36.27±8.11 ^e		

3.4 대상자의 리질리언스와 학업소진의 상관관계

간호대상자의 리질리언스는 학업소진($r=-.512, p<.001$)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리질리언스의 하위요인에 따라 학업소진과의 관계에서는 강인성, 지속성, 낙관주의, 지지, 영성 모두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415, p<.001, r=-.539, p<.001, r=-.393, p<.001, r=-.304, p<.001, r=-.216, p<.001$). 학업소진의 하위요인과 리질리언스와의 관계에서는 정서적 탈진, 냉담, 무

능감 모두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r=-.763, p<.001, r=-.810, p<.001, r=-.707, p<.001$)(Table 4).

3.5 대상자의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 중 학업소진에 차이가 있었던 성별, 스트레스, 간호학 전공 만족도, 주관적 건강상태와 리질리언스를 투입하여 다중 선형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일반적

Table 4. Correlation between Resilience and Academic Burnout

(n=300)

Variables		Resilience					Academic Burnout				
		Har	Per	Opt	Sup	Spi	total	E.E.	Cyn	Ine.	total
Resilience	Har	1									
	Per	.713** ($<.001$)	1								
	Opt	.698** ($<.001$)	.625** ($<.001$)	1							
	Sup	.503** ($<.001$)	.447** ($<.001$)	.437** ($<.001$)	1						
	Spi	.381** ($<.001$)	.316** ($<.001$)	.238** ($<.001$)	.282** ($<.001$)	1					
	total	.927** ($<.001$)	.884** ($<.001$)	.800** ($<.001$)	.609** ($<.001$)	.467** ($<.001$)	1				
Academic Burnout	E.E.	-.246** ($<.001$)	-.221** ($<.001$)	-.255** ($<.001$)	-.155** (.007)	-.096 (.096)	-.265** ($<.001$)	1			
	Cyn	-.293** ($<.001$)	-.495** ($<.001$)	-.317** ($<.001$)	-.292** ($<.001$)	-.208** ($<.001$)	-.427** ($<.001$)	.400** ($<.001$)	1		
	A.E.	-.431** ($<.001$)	-.572** ($<.001$)	-.338** ($<.001$)	-.269** ($<.001$)	-.209** ($<.001$)	-.516** ($<.001$)	.208** ($<.001$)	.512** ($<.001$)	1	
	Total	-.415** ($<.001$)	-.539** ($<.001$)	-.393** ($<.001$)	-.304** ($<.001$)	-.216** ($<.001$)	-.512** ($<.001$)	.763** ($<.001$)	.810** ($<.001$)	.707** ($<.001$)	1

** : $p<.001$

Hardiness : Har, Persistence : Per, Optimism : Opt, Support : Sup, Emotional Exhaustion : E.E. Cynicism : Cyn, Inefficacy : Ine.

특성인 성별, 스트레스, 간호학 전공 만족도, 주관적 건강 상태는 더미화하였다. 변수간 다중 공선성의 문제를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는 모두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계수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모두 10미만으로 다중 공선성이 높은 변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Durbin-Watson 값은 1.971으로 잔차의 상호 독립성을 만족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회귀방정식의 모형은 적합하였으며($F=18.309$, $p<.001$), 모형의 설명력은 41.0%였다. 대상자의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리질리언스, 간호학 전공 만족도, 주관적 건강 상태로 나타났다. 리질리언스가 낮을수록 학업소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eta=-.333$, $p<.001$). 간호학 전공 만족도는 매우 만족하는 대상자에 비하여 만족도가 보통인 대상자와($\beta=.382$, $p<.001$) 불만족한 경우 학업소진이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높았다($\beta=.380$, $p<.001$). 주관적 건강상태는 매우 건강한 대상자에 비하여 건강상태가 나쁜 대상자가 학업소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eta=.171$, $p=.040$)(Table 5).

Table 5. Factors influencing Academic Burnout in Nursing Students

(n=300)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47.257	3.125		15.121	$<.001$
Resilience	-.193	.029	-.333	-6.555	$<.001$
Sex(f)	1.366	.988	.063	1.382	.168
Stress [†]					
moderate	2.447	1.384	.162	1.768	.078
stressful	.883	1.433	.057	.616	.539
very stressful	1.033	1.705	.046	.606	.545
Satisfaction of Nursing Major [‡]					
satisfied	1.985	1.530	.128	1.297	.196
moderately satisfied	5.743	1.546	.382	3.714	$<.001$
dissatisfied	8.978	1.820	.380	4.932	$<.001$
Health Status [‡]					
good	.712	1.394	.042	.510	.610
moderate	2.479	1.397	.164	1.774	.077
poor	3.179	1.545	.171	2.058	.040
very poor	4.609	2.373	.111	1.943	.053

Adj R2 = 0.41, F=18.309, $p<.001$ Stress(hardly=0), [†]Satisfaction of nursing major(very satisfied=0), [‡]Health status(very good=0)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리질리언스와 학업소진의 정도를 확인하고,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학업소진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대상자의 리질리언스 점수는 100점 만점에서 평균 61.40점으로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로 조사한 Jung 등[25]의 연구에서 보고된 평균 69.20점보다는 낮았다. 반면, 홍콩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CHOW 등[26]의 리질리언스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한 결과 평균 60.00점과는 유사하였으며, 스페인 간호대학생의 리질리언스 점수인 평균 86.75점보다는 낮게 나타났다[7]. 리질리언스는 개인에게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역경이나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역동적인 반응으로서 개인의 경험에 따라 차이가 있다[27]. 따라서, 리질리언스는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는 개인의 능력으로 간호대학생의 교과과정에서 리질리언스를 증진시킬 수 있는 중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28]. 또한, 리질리언스가 높은 간호대학생이 불안과 스트레스를 덜 지각한다는 선행연구[9]와 같이 리질리언스의 강화는 학업스트레스를 줄이고 학교생활 적응력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대상자의 학업소진은 41.49점으로 전체학년 간호대학생의 학업소진을 조사한 Hong[29]의 41.54점과는 유사하였으나, 간호대학생 3, 4학년의 학업소진을 조사한 연구에서의 45.18점보다는 낮았다[23]. 본 연구대상자는 1, 2학년 간호대학생으로 전공수업량이 많지 않고 임상실습을 아직 경험하지 않은 학년으로 3, 4학년보다 학업소진이 낮게 측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학업소진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을 상실케하고 학업과 관련된 피로감으로 학업에 몰입하지 못하게 되는 요인임에 따라[30],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임상실습을 경험하지 않은 1, 2학년을 대상으로 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선행관리가 요구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리질리언스가 학업소진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학업소진의 하위영역 모두에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리질리언스 정도가 높을수록 학업소진이 낮다는 것을 설명해준다. M Isabel et al[8]의 연구에서도 리질리언스가 높을수록 학업소진의 하위영역인 정서적 탈진, 냉담, 무능감이 낮았다는 일치된 결과를 보고하여 리질리언스의 중요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학업 스트레스를 극복하지 못하여 학업소진을 경험

하게 되더라도 리질리언스가 높은 학생들은 스트레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고 학업을 유지하고 학습능률을 향상하는 데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리질리언스 점수는 연령이 30세 이상인 군이 19세 이하와 20세-29세인 군보다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도구로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인 선행연구를 발견하지 못하여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다른 도구로 리질리언스를 측정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서[9] 23세 이하의 군이 24세 이상의 군보다 리질리언스 점수가 높게 나타나는 상이한 결과를 볼 때 연령에 따라 리질리언스에 차이가 있음을 일반화 하기는 어려워 동일한 도구에 따른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스트레스, 간호학 전공 만족도,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라 리질리언스 점수에는 차이가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9, 31]에서 전공과 관련하여 만족하는 군이 리질리언스가 높았고,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리질리언스가 높다는 결과와 일치하였으며, 스트레스와 리질리언스간의 높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론도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준다. 따라서, 리질리언스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과 함께 스트레스 관리와 건강관리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학업소진의 차이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소진의 정도가 높았다. 이는 선행연구[13, 29]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 주었으나, [1]의 연구에서는 학업소진에서 성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대상자의 전공 및 학년에 따른 차이에서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한편, 국외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료인이 남성의료인에 비하여 소진이 높으며, 특히 소진의 하위 영역 중 정서적 탈진과 냉담의 초기 징후들이 자살률을 예측하는 지표임을 설명하고 있어[32], 국내 간호사가 아직까지는 여성이 많음을 인지할 때 여성 의료인이 정서적 탈진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스트레스도 학업소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연구결과 하위영역 중 정서적 탈진에서만 차이를 보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학업소진에서 정서적 탈진의 정도가 높다고 하겠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7]에서 심리적 건강상태가 낮은 대상자가 정서적 탈진과 냉담이 증가한 결과와 일부 일치하였다. 학업소진의 하위영역 중 정서적 탈진은 교과과정을 완전히 이수하는데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학업을 소홀히 하게 되며, 성공에 대한 기대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

고 한다[33]. 따라서,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켜 정서적 탈진이 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간호학 전공 만족도,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라 학업소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전공 만족도가 높은 학생들은 학교생활 적응 및 학업 몰입을 잘 하기 때문에 학업소진을 낮게 느끼게 되며,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도 학업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상대적으로 소진이 낮음을 설명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중재방안이 요구되어진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리질리언스, 간호학 전공 만족도, 주관적 건강상태이었으며, 이들 변수는 학업소진을 41.0% 설명하였다. 즉 간호대학생은 리질리언스가 낮고 간호학 전공 만족도가 낮으며, 건강상태가 나쁜 경우 학업소진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간호대학생의 높은 수준의 리질리언스가 학업소진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8]의 결과와 일치하며, 간호학 전공 만족도가 높을수록 실습소진이 낮다는 연구[13]도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정신건강이 악화될수록 소진의 정도가 높다는 Hong[29]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학업소진을 줄이기 위한 대처방안들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이 역경을 극복하고 전문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역량으로 리질리언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위에서 보여준 연구결과와 같이 리질리언스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스트레스 관리 및 건강상태의 중요성을 이해하여 스트레스 대처방안을 모색하고 좋은 건강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관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리질리언스는 개인이 타고난 자질이외기보다는 학습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요소로서 가족, 친구, 교수의 지지가 학생의 리질리언스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27]. 이에 따라, 교수자는 연구결과에 따른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기반으로 학생들의 리질리언스를 높일 수 있도록 개별 상담 및 학습지도의 시간도 필요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리질리언스와 학업소진의 정도를 확인하고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리질리언스와 학업소진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소진에는

성별, 스트레스, 간호학 전공만족도,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간호대학생의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는 리질리언스, 간호학 전공 만족도, 주관적 건강상태로 확인되었고, 학업소진을 41.0%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간호대학생 1, 2학년을 대상으로 학업소진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학생상담 및 학습캠프를 통하여 리질리언스를 증진시키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References

- [1] K. H. Chun,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burnout of medical and graduate students and related variables", *Korean Medical Education Review*, vol 16, no. 2, pp. 77-87, 2014.
DOI: <https://doi.org/10.17496/kmer.2014.16.2.077>
- [2] M.J. An, A. Y. Kang, Y. A. Kim, M. J. Kim, Y. L. Kim, H. W. Kim, Y. S. Na, Y. Y. Hang, "Comparison of Academic Engagement, Academic Burnout, Stress, and Social Support by grade among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School health*, vol 30, no. 2, pp. 113-123, 2017.
DOI: <https://doi.org/10.15434/kssh.2017.30.2.113>
- [3] I. Deary, R. Watson, & R. Houston, "A longitudinal cohort study of burnout and attri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 43, no. 1, pp. 71-81, 2003.
DOI: <https://doi.org/10.1046/j.1365-2648.2003.02674.x>
- [4] A. Rudamn, J. P. Gustavsson, "Burnout during nursing education predicts lower occupational preparedness and future clinical performance: A longitudinal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vol 49, no. 8, pp. 998-1001, 2012.
DOI: <https://doi.org/10.1016/j.ijnurstu.2012.03.010>
- [5] A. S. Masten, K. M. Best, N. Garmezy, "Resilience and development: contributions from the study of children who overcome adversit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vol 2, no. 4, pp. 425-444, 1990.
DOI: <https://doi.org/10.1017/s0954579400005812>
- [6] T. M. Stephens, "Nursing student resilience: a concept clarification", *Nursing Forum*, vol 48, no. 2, pp. 125-133, 2013.
DOI: <https://doi.org/10.1111/nuf.12015>
- [7] Y.E. Jung & J.H. Chae, "A Review of Resilience Assessment Tools", *Journal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vol 49, pp. 50-57, 2010.
- [8] R.R. M Isabel, G.I. Mariano, S.T. Emiliana de los Angeles, C.G. Cesar, M.R. Maria Emilia, "An exploratory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resilience, academic burnout and psychological health in nursing

- students”, *Contemporary Nurse*, vol 52, no. 4, pp. 430-439, 2016.
DOI: <https://doi.org/10.1080/10376178.2016.1213648>
- [9] YK. Lee, LH Kim, “The Relationship of Ego Resilience and involvement with the Experience of Anxiety and Perceived Stres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c-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5, no. 4, pp. 1953-1962, 2014.
DOI: <https://doi.org/10.5762/KAIS.2014.15.4.1953>
- [10] Y. S. Park, YH. K, “Ego resilience, Problem solving process and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Nursing education*, vol 19, no. 3, pp. 341-350, 2013.
DOI: <https://dx.doi.org/10.5977/jkasne.2013.19.3.341>
- [11] MJ. Shin, YE. Chun, “Convergence among Resilience, Clinical Performanve Ability, Stress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9, no. 2, pp. 19-32, 2018.
DOI: <https://doi.org/10.15207/JKCS.2018.9.2.019>
- [12] S. H. Choi, “Effects of Ego Resilience, Interpersonal Relation, and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on College life adaptation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9, no. 11, pp. 148-156, 2018.
DOI: <https://doi.org/10.5762/KAIS.2018.19.11.148>
- [13] HH. Cho, J. M. Kang, “Factors influencing Clinical Practice Burnout in Student nurses”,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vol 23, no. 2, pp. 199-206, 2017.
DOI: <https://doi.org/10.4094/chnr.2017.23.2.199>
- [14] CS. Rees, B. Heritage, R. O-M, D. Chamberlain, L. Cusack, J. Anderson, V. Terry, C. Rogers, D. Hemsworth, W. Cross, DG. Hegney, “Can we predict burnout among student nurses? an exploration of the ICWR-1 model of individual psychological resilience”, *Frontiers in psychology*, vol 7:1072, pp. 1-11, 2016.
DOI: <https://doi.org/10.3389/fpsyg.2016.01072>
- [15] JS. Kang, JY. Lim, “The Influence of Clinical Nurse’ Resilience on Job Stress and Burnout”,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society*, vol 15, no. 11, pp. 263-273, 2015.
DOI: <https://dx.doi.org/10.5392/JKCA.2015.15.11.263>
- [16] I. O. Moon, S. K. Park, J. M. Jung, “ Effects of resilience on Work Engagement and Burnout of Clinical Nurses” *Journal of Academic Nursing Administration*, vol 19, no. 4, pp. 525-535, 2013.
DOI: <https://doi.org/10.1111/jkana.2013.19.4.525>
- [17] E. Ko, H. Y. Kim, G. S. Kin, R. S. Kim, H. S. So, “Burnout among Nurses in Cancer Wards:Impact of Nursing Professionalism, Perfectionism, and Resilience”, *Asia Oncology Nursing*, vol 18, no. 4, pp. 214-223, 2018.
DOI: <https://doi.org/10.5388/aon.2018.18.4.214>
- [18] S. Y. Hwang, J. Y. Han, “ Impact of Response to Violence and Resilience to Burnout in Emergency Department Nurses”,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vol 24, no. 3, pp. 303-312, 2018.
DOI: <https://doi.org/10.22650/JKCNR.2018.24.3.303>
- [19] E. J. Lim, Y. M. Lee, “Influence of the job stress, Resilience, and Professional Identity on Burnout in Operation Room Nurses”, *Journal of Korean Critical Care Nursing*, vol 10, no. 1, pp. 31-40, 2017.
- [20] K. M. Connor, J. R. T. Davidson, “Development of a new resilience scale: the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 (CD-RISC)”, *Depression and Anxiety*, vol 18, no. 2, pp. 76-82, 2003.
DOI: <https://doi.org/10.1002/da.10113>
- [21] H. S. Baek,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K-CD-RISC)*”, Master’s thesis of medical science, Eulji University, Taejeon, Korea, 2009.
- [22] W. B. Schaufeli, I. M. Martez, A. M. Marques-Pinto, M. Salanova, and A. B. Bakker, “Burnout and Engagement in University Students: A Cross-National Stud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vol 33, no. 5, pp. 464-481, 2002.
DOI: <https://doi.org/10.1177/0022022102033005003>
- [23] YK. Hong, “*Incivility experienced by nursing student, coping and Burnout in clinical practi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Pusan, Korea, 2016.
- [24] H. Kang, K. Yeon, S. T. Han, “A Review on the Use of Effect Size in Nursing Research”, *Journal of Korean Academic Nursing*, vol 45, no. 5, pp. 641-649, 2015.
DOI: <https://dx.doi.org/10.4040/jKan.2015.45.5.641>
- [25] SI. Jung, GW. Ju, S. I. Lee, CJ. Shin, JW. Son, SK.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insomnia and suicidal idea through resilience”, *Korean journal of psychosomatic medicine*, vol 25, no. 2, pp. 193-199, 2017.
DOI: <https://dx.doi.org/10.22722/KJPM.2017.25.2.193>
- [26] K. M. CHOW, W. K. F. TANG, W. H. C. CHAN, W. H. J. SIT, K. C. CHOI, S. CHAN, “Resilience and well-being of university nursing students in Hong Kong: a cross-sectional study”, *BMC Medical Education*, vol 18, no. 13, pp. 1-8, 2018.
DOI: <https://doi.org/10.1186/s12909-018-1119-0>
- [27] Y. W. Jeong, J. A. Kim, “A concept analysis of ego-resiliency”,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vol 27, no. 6, pp. 644-655, 2015.
DOI: <https://dx.doi.org/10.7475/kjan.2015.27.6.644>
- [28] L. J. Thomas and S. H. Revell, “Resilience in nursing students: An integrative review”, *Nurse Education Today*, vol 36, pp. 457-462, 2016.
DOI: <https://doi.org/10.1016/j.nedt.2015.10.016>
- [29] CM. Hong, “The relationship between burnout using MBI-SS and mental health in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5, no. 4, pp. 353-362 2015.
DOI: <https://doi.org/10.14257/ajmahs.2015.08.71>
- [30] H. Liu, A. I. Yansane, Y. Zhang, H. Fu, N. Hong, E. Kalenderian, “Burnout and study engagement among

medical student at Sun Yat-sen University, China”, *Medicine*, vol 97, no. 5, pp. 1-6, 2018.

DOI: <https://doi.org/10.1097/md.00000000000010326>

- [31] J. H. Park, E. H. Kim, “Relationship of academic stress, ego-resilience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c-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8, no. 9, pp. 193-202, 2017.
DOI: <https://dx.doi.org/10.5762/KAIS.2017.18.9.193>
- [32] LN. Dyrbye, MR. Thomas, FS. Massie, DV. Power, A. Eacker, W. Harper, S. Durning, C. Moutier, DW. Szydlo, PJ. Novotny, JA. Sloan, TD. Shanafelt, “Burnout and suicidal ideation among U.S. medical students”, *Annals of internal Medicine*, vol 149, no. 5, pp. 334-341, 2008.
DOI: <https://doi.org/10.7326/0003-4819-149-5-200809020-00008>
- [33] A. Rudman, J. P. Gustavsson, “Burnout during nursing education predicts lower occupational preparedness and future clinical performance: a logitudinal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vol 49, no. 4, pp. 988-1001, 2012.
DOI: <https://doi.org/10.1016/j.ijnurstu.2012.03.010>

이 은 하 (Eunha Lee)

[정회원]



- 2003년 2월 :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1년 2월 :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1년 9월 ~ 현재 : 혜전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간호학 교육, 기본간호